

# 아동의 죽음불안 감소를 위한 죽음대비교육의 효과\*

## Effectiveness of Death Education on the Reduction of Children's Death Anxiety

남은영\*\*

Nahm, Eun Young

장연집\*\*\*

Chang, Yeon Ji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hildren's death anxiety by religion, previous death experience and the effectiveness of a death education program. Half of the subjects 60 nine-year-old elementary school subjec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half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The 6-week death education program for the experimental group included literature, role play, and discussion. A questionnaire and death anxiety scale for children were administered to all subjects. After the educational program,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ath anxiety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However, children's religion and previous experience with death ha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to their death anxiety or effectiveness of the death education progra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죽음은 생노병사의 자연스런 과정이며 어린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죽음

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은 기계문명의 발달과 도시화에 의한 복잡한 사회환경으로 인해 사고사, 돌연사 등 예견할 수 없는 죽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핵가족화와 의료시설의

\* 본 논문은 1998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

\*\*\*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발달이 가져온 임종장소의 이동으로 아동은 조부모나 가까운 친척들의 죽음을 병원에서 간접적으로만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동이 부모나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게된다면 혼란과 불안에 빠지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동기에 형성된 죽음에 대한 태도와 불안은 성인기까지 그대로 지속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된다(Lonetto, 1980; Lonetto & Templer, 1986).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직시하고 이런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한가지 방법이 바로 죽음대비교육이다. 아동은 어릴 때부터 꽃이나 식물의 죽음, 애완동물의 죽음, 조부모의 죽음, TV 주인공의 죽음 등 직·간접적인 많은 죽음에 부딪히게된다. 실제로 아동뿐 아니라 심지어 아주 어린 유아도 죽음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데, 죽음에 처음 직면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 강한 관심과 두려움을 갖는다(Wass, 1994). 따라서 부모나 교사들은 연령에 맞는 죽음대비교육을 통해 아동이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고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이원호, 1995; Corr, 1984; Crase, 1984; Evans, 1982; Gibson, Roberts & Buttery, 1982; Walsh, 1980).

교육현장의 많은 초등학교 교사들도 죽음대비교육의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정작 교육장면에서 접근하기에는 아동에게 너무 민감한 개념이므로 부적절하게 여기고 있다(김상희, 1986). 그러나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신이 경험한 죽음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갖게된다. 따라서 교사는 이것을 사실적인 측면에서 명료하고 신뢰감있게 대답해줄 필요가 있으며(Gordon,

1979; Honnelore, 1991; Susan, 1995), 이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죽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룬 동화책을 활용하거나 문화에 따라 다른 장례식의 차이 등을 설명함으로써 죽음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이경우·서영숙, 1984; 최숙향, 1995; Wass, 1985).

그러나 죽음대비교육이 아동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연구의 축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80년대 이후 아동의 연령이나 인지발달에 따른 죽음개념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행해져 오고 있다(권성자, 1984; 김남주, 1984; 김상희, 1986; 김양남, 1992; 이정희, 1988; 이준숙, 1992; 정경숙, 1985).

건강할 때 죽음을 다루어 보는 것은 생의 한 부분으로써 죽음을 받아들여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자극하는데 필요하다. 죽음대비교육은 갑작스럽거나 예기된 죽음을 다루고 받아들이는데 있어 불안을 낮춰주고 긍정적이 되게 하며 죽음에 따르는 비탄을 건강하게 이겨내도록 도와준다. 즉 죽음대비교육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교육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수용하게 한다. 따라서 죽음대비교육은 삶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라기 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장연집, 1997).

그러므로 죽음대비교육의 궁극적인 필요성은 아동에게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키우도록 하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가게끔 삶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아동이 Piaget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7-11세 사이가 되면 인지적 사고의 발달로 인해 죽

음이라는 현상을 원상회복이 될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불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만 9세 정도가 되면 같은 구체적 조작기라도 죽음이 막연한 타인에게만 일어나리라고 보는 그 이전 연령과는 달리, 현실속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아 죽음에 대한 현실적인 불안이 나타나게 된다(Pennells & Smith,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죽음에 대한 충격과 죽음불안을 감소 시키위해 현실적인 죽음불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만 9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의 죽음불안은 종교와 죽음경험에 따라 각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의 경우 실시 전과 후에 아동의 죽음불안은 종교와 죽음경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 실시여부에 따라 아동의 죽음불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한 S 초등학교 4학년 2개 학급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9.5세이며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류에 속한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두 반중 임의로 한 반의 30명은 실험집단에 다른 한 반의 30명은 통제집단에 배정한 후 실험집단에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검사점수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고 대상 아동의 성별, 죽음경험의 시기와 가정 배경변인 중 부모의 연령, 직업, 학력, 주거형태를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죽음불안 척도를 알아보는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 아동(M=122.73)과 통제집단 아동(M=126.00)은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72$ ,

$p>.05$ ). 또한 배경 요인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chi^2$ 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성별( $\chi^2=.067$ ,  $p>.05$ ), 죽음경험의 시기( $\chi^2=3.94$ ,  $p>.05$ ), 아버지 연령( $\chi^2=3.49$ ,  $p>.05$ ), 아버지의 직업( $\chi^2=3.00$ ,  $p>.05$ ), 아버지의 학력( $\chi^2=5.23$ ,  $p>.05$ ), 어머니 연령( $\chi^2=3.21$ ,  $p>.05$ ), 어머니의 직업( $\chi^2=3.42$ ,  $p>.05$ ), 어머니의 학력( $\chi^2=6.55$ ,  $p>.05$ ), 주거형태( $\chi^2=4.52$ ,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이상의 변인에서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다.

### 2. 검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도구로는 첫째, 아동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종교, 죽음경험 변인과 대상아동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 둘째, 아동의 죽음불안을 측정하

기 위해 Collet-Lester(1969)의 죽음불안척도(Fear of Death and Fear of Dying Scale)를 수정한 아동용 죽음불안척도가 이용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rman(1986)의 죽음교육프로그램과 Barbara(1996)의 'Good Grief'를 이용한 총 6단계의 죽음교육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 1) 아동의 죽음불안 관련변인 및 가정 배경요인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종교와 죽음경험으로보고 아동의 종교유무와 죽음경험유무 및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는 첫째, 연구대상 아동의 종교와 둘째, 대상아동 부모의 종교, 셋째, 아동과 고인과의 관계와 경험한 시기, 넷째로는 주거형태, 마지막으로 부모의 연령, 직업, 학력을 물어보았다.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보기를 제시하였다.

### 2) 아동용 죽음불안척도

죽음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는 Collet-Lester(1969)의 죽음불안척도(Fear of Death and Fear of Dying Scale)이다. 이 검사는 원래 6점 척도로 되어있는데 많은 연구를 거치면서 Lester에 의해 5점 척도로 된 수정 판이 제작되었고 본 연구자는 이것을 이용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예비검사와 안면타당도를 걸쳐 질문내용을 수정하였다.

이 도구는 32개의 항목이 4개의 하위척도로 나뉘어있다. 즉 첫째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Fear of Death of Self), 둘째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한 불안(Fear of Dying of Self), 셋째 타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Fear of Death of Others), 넷째 타인의 임종 과정에 대한 불안(Fear of Dying

of Others)으로 나뉘어 측정된다. 역채점이 되는 8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점수는 5점 척도로 문항에 따라 '매우 두렵다' 5점, '두렵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두렵지 않다' 2점, '전혀 두렵지 않다' 1점을,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게 되어 있다. 따라서 총 점수의 최저점은 32점이고 최고점은 160점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이 크고 점수가 낮을 수록 적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는 상대적 의미가 있을 뿐 개개의 점수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박은경, 1995). 이 도구는 이미 외국의 수많은 선행 연구들로부터 신뢰도, 타당도, 유용성이 입증된바 있으나(Carrera & Elenewski, 1980; Lester, 1972; Linn Et al, 1982; Medonald, 1986; Robinson, 1983; Testa, 1977; Vargo, 1984), 이것은 성인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고 국내에서도 아직 아동을 위한 죽음불안검사 척도가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자는 Collet-Lester(1969)의 죽음불안척도(Fear of Death and Fear of Dying Scale) 수정판을 번역하여 2차례의 예비검사와 4차례의 안면타당도를 통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아동에 맞게 교정하였다.

예비검사에서는 타인의 죽음에 대한 문항만 애완동물의 죽음에 관한 상황을 묻는 문항으로 대체하였으나 안면타당도를 거치면서 아동이 느끼는 충격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강아지 가족과 그 친구의 이야기라고 가정한 후 질문에 답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안면 타당도는 초등학교 교사와 아동심리전공자 박사과정생 2인, 교수 1인에게 의뢰하여 검증받았다.

### 3) 아동을 위한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는 아동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

인을 살펴보고 죽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죽음대비교육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연구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아동으로 하여금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Orman(1987)의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과 Barbara(1996)의 'Good Grief'에 기초를 두고 3편의 동화를 중심으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양방향 모두 고려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Orman(1987)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화를 활용한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프로그램은 각 연령에 적절한 교육 목표, 토론 주제와 활동, 일선 교사의 피드백, 미국 내에서 출판된 죽음에 관한 동화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다. Barbara(1996)의 'Good Grief'는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죽음대비교육의 실제 활용방법과 더불어 죽음과 관련한 대부분의 주제들이 독자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접근하게끔 논의되고 있는 책으로 죽음대비교육을 위해 시, 음악, 그림 등을 활용한 활동도 소개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죽음을 다룬 아동용 동화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외국의 도서중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에 적합한 동화 3권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동화를 1차로 본 연구자와 아동심리 전공의 대학원생이 번역하였다. 이것으로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구연을 한 후 우리나라 아동에게 더 적합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연구자가 다시 2차례 수정 보완하였다. 극중의 인물이름을 우리나라에 맞게 바꾸고 역할극을 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지루해 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생략

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은 총 6회로 도입, 동화1, 2, 3을 듣고 토론하기, 역할극하기,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다. 1회는 도입단계로 모든 생물은 성장, 변화하고 생명의 주기가 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했다. 또한 자신이 겪었던 작은 상실경험들을 얘기해보고 그 때의 감정에 대해 서로의 느낌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2, 3, 4회는 각기 동화1, 2, 3을 들려주고 동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5-6인으로 구성된 소집단 토론을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화의 내용으로는 각각 애완동물의 죽음, 의인화된 양할아버지의 죽음, 아빠의 죽음을 점진적으로 다뤄 보았고 모두 OHP를 이용하여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5회는 앞서 다뤘던 동화를 역할극으로 시연해 보고 각자의 느낀 점을 얘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6회는 죽음대비교육을 통해 느낀 점과 달라진 점을 토론해 보고 심화학습으로 핵전쟁, 테러, 살인 등 죽음을 일으키는 사건들에 대해 토론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대상 아동의 실험처치 유무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된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아동용 죽음불안척도를 사용하였고 죽음대비교육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실험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1997년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6주간 주 1회씩 총 6회 실시하였다. 아동용 죽음불안척도를 이용한 사전·사후검사는 학급담임교사의 주도로 실시되었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한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본 연구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를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본 연구의 실험설계 단위: 명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전체 아동수
실험집단	+	+	+	30
통제집단	+	-	+	30
전체 아동수	60	60	60	60

+ 실시 - 비실시

사전검사는 아동의 죽음불안 관련변인 및 가정배경요인 질문지와 아동용 죽음불안척도를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동시에 실시하였다. 사전검사 후 6주동안 실험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여섯 단계의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도입단계(30분), 동화들려주고 토론하는 단계 3회(각 45분씩), 역할극하는 단계(45분), 마무리단계(30분)의 형식으로 1주에 1회씩 총 6주간 6회 진행되었다.

아동용 죽음불안척도를 사용한 사후검사는 6주간의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60명의 두 집단 아동 모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통계적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 아동의 종교유무와 죽음경험유무에 따른 죽음불안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검증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는 실험집단에서 아동의 종교유무와 죽음경험유무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검증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 죽음대비교육이 아동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효과 검증을 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검증을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아동의 죽음불안은 종교와 죽음경험에 따라 각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의 위의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아동

의 종교유무에 따른 죽음불안척도 사전검사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종교 유무에 따른 죽음불안척도 사전검사 점수의 t검증 결과

집단	변인	종교 있음			종교 없음			t
	N	M	SD	N	M	SD		
실험 집단	20	124.6	16.24	10	119.00	18.23	- .85	
통제 집단	23	127.91	16.33	7	119.71	18.03	- .64	
전체	43	126.37	16.65	17	119.29	19.04	-1.42	

〈표 2〉에 의하면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다소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보았을 때도 이같은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죽음불안척도 검사점수는 종교가 있는 아동이 없는 아동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대상에 대한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t=-1.42, p>.05$ ).

둘째로 아동의 죽음경험 유무에 따른 죽음불안척도 사전검사 점수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3〉과 같이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t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죽음경험은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표 3〉 죽음경험 유무에 따른 죽음불안척도 사전검사 점수의 t검증 결과

집 단	죽음 경험 있음			죽음 경험 없음			t
	N	M	SD	N	M	SD	
실험 집단	17	123.41	21.45	13	123.84	13.27	-.23
통제 집단	15	128.06	18.06	15	123.93	16.09	-.66
전 체	28	125.59	18.42	32	122.96	16.59	-.57

〈표 3〉에 의하면 죽음경험이 있는 집단(125.59)이 경험이 없는 집단(122.96)보다 다소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보았을 때도 이같은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t검증결과  $t=-.57(p>.05)$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먼저 아동의 종교유무가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점수의 차를 t검증하였다. t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문제 2.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의 경우 실시 전과 후에 아동의 죽음불안은 종교와 죽음경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가 있는 아동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차(18.8)보다 종교가 없는 아동의 점수차(23.1)가 조금 컸으나 t검증결과  $t=.58(p>.05)$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종교유무에 따른 실험집단의 죽음불안척도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t검증 결과

집 단	변 인	종교 있음			종교 없음			t
		N	M	SD	N	M	SD	
실험 집단	사전검사	20	124.6	17.24	10	119.0	17.04	
	사후검사	20	105.8	21.75	10	95.9	15.97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이		20	18.8	21.25	10	23.1	13.69	.58

둘째로, 아동의 죽음경험이 죽음대비교육을 실시한 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점수의 차를 t검증하였다. t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죽음경험이 있는 아동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차(21.1)가 죽음경험이 없는 아동의 점수차(18.3)보다 조금 컸으나 t검증결과  $t = .58(p > .05)$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죽음경험유무에 따른 실험집단의 죽음불안척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의 t검증 결과

집 단	변 인	죽음 경험 있음			죽음 경험 없음			t
		N	M	SD	N	M	SD	
실험 집단	사전검사	13	121.8	16.27	11	123	16.45	
	사후검사	13	100.7	23.06	11	104.7	20.07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이		13	21.1	17.62	11	18.3	17.07	- .79

연구문제 3.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 실시여부에 따라 아동의 죽음불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위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차이를 t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죽음불안척도 사후검사점수의 t검증 결과

	종교 있음			종교 없음			t
	N	M	SD	N	M	SD	
사전검사	30	122.73	18.09	30	126.00	17.58	- .72
사후검사	30	102.5	24.13	30	128.0	20.07	-4.238***

\*\*\*  $p < .001$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은 사전검사의 차이검증결과 동질한 집단이었다. 그러나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 실시후 실시한 죽음불안척도의 사후검사에서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 = -1.238, p < .001$ ).

첫째, 연구문제 1에서 아동의 죽음불안척도 검사점수는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나 t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죽음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나 t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해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둘째, 연구문제 2에서 죽음대비교육 실시후 아동의 죽음불안척도 점수는 종교가 있는 아동보다 종교가 없는 아동의 점수가 더 감소했으나 t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죽음경험이 있는 아동이 경험이 없는 아동 보다 점수가 더 감소했으나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연구문제 3에서 죽음대비교육 실시여부에 따른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검증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험집단의 아동들이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더 낮은 점수를 얻었고 따라서 본 연구의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죽음불안척도 점수에 종교가 주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종교의 유무는 아동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종교와 죽음불안은 부정적인 관계 또는 관계가 없었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Lester, 1972; Templer, 1972; Kaustenbaum, 1977; 김혜련, 1991). 반면 종교가 죽음불안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발표한 정경숙(1992), 조지연(1989), Feifel & Branscomb(1973), Templer(1972), Wagner & Lorion(198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종교적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죽음불안의 정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두 변인간의 연관을 찾을 수 없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종교유무에 따른 점수차는 종교가 아동의 죽음불안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아동들의 믿음정도가 종교가 있는 아동과 종교가 없는 아동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더불어 대상 아동의 수가 통계적인 의미를 갖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여 두 변인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또한 대부분의 종교가 있는 아동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부모의 권유에 의해 종교를 선택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인과 달리 확고한 믿음체계가 없어 죽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죽음불안척도 점수에 죽음경험이 주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죽음경험의 유무는 아동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타인의 죽음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죽음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죽음불안 수준이 더 낮다는 정숙경(1992)의 연구결과나 Glass(1990)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겪은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상실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죽음을 덜 두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아동의 죽음경험이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줄 만한 부모나 형제자매의 죽음보다는 조부모의 죽음경험이 많았으며 또한 아동이 죽음을 경험한 시기가 3년전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부모들이 어린 아동에게 조부모의 죽음에 대해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장례 참여를 제한하여 제대로 된 죽음경험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즉 연구대상이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때, 아동이 가까운 사람을 상실하더라도 남아 있는 다른 성인에 의해 충격을 받을만한 경험을 제한받거나 장례식 등의 참석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경험을 통해 다음의 상실에 대처할 힘을 키우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구대상 아동중 자신의 부모의 죽음이나 형제자매의 죽음을 최근에 경험한 아동의 경우 죽음대비교육 실시후 죽음불안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직접 시신을 보았거나 장례경험을 한 아동의 경우 죽음불안이 더 감소하였다.

둘째, 아동의 종교유무와 선행한 죽음경험이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알아본 결과 아동의 종교유무와 죽음경험은 프로그램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와같은 결과는 연구문제 1의 결과 및 논의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죽음대비교육이 아동의 죽음불안을 감소시켰는지를 알아본 결과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은 죽음불안척도 검사점수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죽음교육의 효과를 입증한 Richardson(1993)의 연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교육을 통해 죽음불안을 감소시킨 Fischer(1995), Glass(1990), Miles(1980), Tansch(1988), Trent(1981)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죽음대비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프로그램 실시후 죽음불안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따라서 본 연구의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수준을 감소시키

는데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서론에서 밝힌대로 죽음대비교육은 아동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교육을 통해 얻은 사실적 정보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동화를 통해 타인의 죽음을 간접경험하므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실제로 연구가 끝난 후 받은 피드백에서 많은 아동들이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두려움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외국의 선행연구의 경우 죽음대비교육의 효과는 연구자에 따라 죽음불안이 감소되기도 하고 오히려 증가되기도 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Loneto(1986)와 McDonald(1981)은 피험자의 종교유무, 죽음경험유무, 교수방법상의 문제로 보았는데 특히 교수방법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경험적 방법이 죽음불안을 낮추는데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동화를 들려준 후 자발적 토론과 역할극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가 종교와 죽음경험 유무가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경험적 방법이 아동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 2.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동의 죽음불안은 아동이 가진 종교유무와 죽음경험 유무와는 관련이 없었다. 즉 성인의 경우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요인이 아동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았

으며 따라서 종교적 신념이 강하게 자리잡지 않는 아동의 경우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죽음경험의 경우 흔히 부모들이 아동에게 죽음을 숨기거나 제대로 경험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죽음불안은 죽음경험유무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아동의 종교유무와 죽음경험은 죽음대비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동화, 역할극, 토론을 중심으로하는 경험적인 교수방법이 아동의 죽음불안 감소에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용 죽음불안척도는 아동에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성인용 도구를 연구자가 예비검사를 통해 아동에 맞게 구성한 것이므로 분석결과는 단지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에 의한 결과일 뿐 이를 일반화시키는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아동의 죽음불안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과 이를 통해 아동의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 자료들의 축적이 요망된다.

둘째, 아동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종교, 죽음경험의 시기와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아동의 사회경제적 배경, 연령, 성격 등 그 외 변인들도 자세히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인 만 9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연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기 및 아동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세분화된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이 개

발 되어 한다.

어린 유아의 경우에는 죽음을 다루기 전에 상실의 경험이나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 등을 시작으로 생활 속에서의 작은 죽음들에 대해 점차 다뤄야하고 아동기 후기에는 죽음을 좀 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토론하고 다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죽음대비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교적 지식의 결여나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가족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가정의 아동에겐 학교에서 죽음대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아동을 사회화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써 문화와 지식, 관습, 기술, 가치 등을 다음세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죽음은 그러한 유산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규교과과정화 하던지 아직 이것이 어려우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기존의 학과에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통합시켜야 한다. 즉 생물에서 벌이나 나비의 생명주기를 배우면서 인간의 생명주기를 자연스럽게 다루거나 가족과 인간의 심리에 대해 배우면서 탄생, 성장, 성인기, 노화,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함께 다루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한국인의 죽음관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양서들이 많이 출판되어야한다. 어린 유아를 위해서는 동물을 소재로한 이야기를 읽고 죽음을 간접경험해 보는 기회를 갖음으로써 상실의 슬픔과 조절을 배우게 하고 연령이 높은 아동을 위해 죽음을 보는 여러 문화의 차이나 종교적인 차이, 이에 따른 상례관습의 차이, 안락사 문제, 자살문제등을 폭넓게 다루주는 교재가 개발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뜻있는 사람들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아직 우리사회가 아동뿐 아니라 성인들조차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얘기하기를 꺼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성인의 태도는 성인 자신과 아동에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만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아동뿐 아니라 성인을 위한 다각적인 죽음대비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대상이 서울지역의 중하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든 사회경제적 수준의 아동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서울뿐 아니라 표집 지역과 대상을 넓혀 여러 지역의 많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과 죽음대비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보아야 한다. 동시에 질적인 연구를 통해 아동이 실제로 느끼는 죽음불안을 아동의 언어로써 이해하고 이에 따른 죽음대비교육의 효과 또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질적인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야만이 아동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6주간의 단기 죽음대비교육을 초등학교 4학년에게 실시한 연구로 아동의 죽음불안과 죽음대비교육의 효과를 다룬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유아기와 전 아동기를 대상으로한 프로그램개발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실시한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죽음대비교육이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므로 이를 실시하여 효과를 입증했다는 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상 아동의 연령이 아직 어려 죽음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나 사후세계의 관점, 안락사, 자살 등에 대한 심도깊은 내용은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생사관에 대한 심도깊은 가치교육을 병행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권성자 (1984). 어린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남주 (1984). 아동의 죽음개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상희 (1986). 죽음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도 및 부모와 교사의 의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양남 (1992). 아동의 죽음개념발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경 (1995). 죽음불안 측정 도구개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 경우·서영숙 편역 (1984). 유아를 위한 사회교육. 서울: 교문사.
- 이정희 (1988). 아동의 죽음개념형성 및 그 중재 효과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준숙 (1992). 아동의 죽음 하위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호 역 (1995). 죽음에의 대비교육. 서울: 문음사.
- 장연집 (1998). 아동기 죽음개념의 발달과 충격완화를 위한 비탄치료의 기초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논총, 4, 127-147.
- 장연집 외 (1997).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정경숙 (1985).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과 인지적 발달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지연 (1989). 죽음에 대한 불안태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숙향 (1995).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bara W. (1993). *Good Grief*. London: Jessica Kingsley Pub.
- Carson, V. (1980). Meeting the spiritual need of hospitalized psychiatric patients. *Perspective in psychiatric care*, 18(1), 18.
- Collet, L., & Lester, D. (1969). The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72, 179-181.
- Corr, C. (1984). A model syllabus for children and death courses. *Death Education*, 8(1), 11-28.
- Cruse, D. R., & Cruse, D. (1984). Helping children understand death. *Young Children*, 32, 21-25.
- Evans, B. J. (1982). Death of classmate : A teacher's experience dealing with tragedy in the classroom.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52, 104-107.
- Fischer, M. M. (1995). *The effect of a multimethod death education curriculum on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ag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kansas.
- Gibson, B., Roberts, P., & Buttery, T. (1982). *Death education: A concern for the living*. Phi Delta Kappa Educational Foundation, Indiana.
- Glass, J. C. Jr. (1990). Changing death anxiety through death education in the public schools. *Death Studies*, 14(1), 31-52.
- Gorden, A., & Ilg, F. L. (1979). *They need to know : how to teach children about death*. New Jersey: Prentice-Hall.
- Hannelore, W. (1991). *Helping children cope with death*. New York: Hemisphere Pub.
- Klingman, A. (1980). Death education through literature: A preventive Approach. *Death Education*, 4, 271-279.
- Lester, D. (1970). Relation of fear and death in subjects to fear of death in their Parents. *Psychological Record*, 20, 511-513.
- Lonetto, R. (1980). *Children's concept of death*. New York : Springer.
- Lonetto, R., & Templer, D. J. (1986). *Death and anxiety*. Washington, Dc: Hemisphere.
- McDonald, R. (1981). The effect of death education on specific attitudes toward death in college students. *Death Education*, 5, 59-65.
- Miles, M. (1980). The effects of a course on death and grief on nurse's attitudes toward dying patients and death. *Death Education*, 4, 245-260.
- Orman, D. (1987). *The development of a curriculum on death for the elementary school emphasizing the unique aspects of children's litera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mple.
- Pennells, M., Smith, S. (1995). *The forgotten mourners*. London: Jessica Kingsley Pub.
- Richardson, F. J. (1993). *Death Education: A comparison of two programs for mothers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Robert A. N. (Ed.) (1994). *Death anxiety handbook*. USA: Taylor & Francis.
- Ruth W. (1993). *Goodbye, Mitch*. Illinois: Albert Whitman & Company.
- Sherry E. J. (1987). *After a child dies counseling bereaved families*. New York : Springer.
- Susan C., & Siter M. (1995). *Interventions with bereaved children*. London: Jessica Kingsley Pub.
- Trent, C., Glass, J. C. Jr. & McGee, A. (1981). The impact of a workshop on death and dying on death and dying on death anxiety, life satisfaction, and locus of control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 *Death Education*, 5, 157-173.

Walsh, H. (1980). *Introducing the young child to the social world*. New York: Macmillan Pub.

Wass, Hannelore & Carr, Charles A. (1985).

*Childhood & death*. Washinton, D.C.: Hemisphere Publishing Co.

Wass, Hannelore (1991). *Helping children cope with death*.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Co.